

광주시·전남도의회 2016 결산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아권이 분열하면서 그 동안 일당독재 체제였던 광역의회가 양당체제로 재편되는 등 지역정가에도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전국 최초 고3 무상급식 예산 편성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올해 134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176건, 예산·결산안 12건, 동의·승인안 58건 등 총 28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시의원들은 이 가운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 81건을 직접 발의했다. 시민 보호 관련 조례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575건 시정조치

삼각동 고압선 지중화 합의

전국우수조례평가 단체우수상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 집행부에 대한 대안없는 지적 보다는 정책을 평가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삼각동 고압선전선 지중화사업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롯데마트 불법 전대문제를 지적해 130여명의 사회 환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62건, 긴급 현안질문 3건, 5분 자유발언 27건을 통해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국가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군 공항 이전 및 누리과정 예산 정부 반영 등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 이은방)는 지난 27일 제254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아권이 분열하면서 그 동안 일당독재 체제였던 광역의회가 양당체제로 재편되는 등 지역정가에도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시·도의회의 올해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노력 덕에 한국지방자치회회가 주관하는 '전국우수조례평가 단체부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13회에 걸쳐 의원들의 개인수상도 이어졌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 간 팽팽한 기싸움과 일부 더민주 의원들의 이탈 등이 벌어지면서 후반기 회기가 10여일 늦어지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국장급 13명 승진·전보 인사

농림축산식품국장 서은수

전남도가 29일 국장급 13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2017년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해양수산부에 파견나갔던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독복지과장을 해양수산국장에, 농업 6차 산업화 등에 전문성을 지닌 서은수 장흥부군수를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발탁했다. 지역계획과에서 바로 해당국장으로 승진한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은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교육에서 복귀한 정순주 전 자치행정국장이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맡아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이끌게 됐고, 서기원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옮겼다.

교육을 다녀온 김병주 전 해양수산국장은 한국전력에 파견, 전남도의 주축사업인 에너지밸리 사업을 맡는다. 정찬균 일자리정책실장과 최연수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직무대리에서 직급이 승진했으며, 위광환 건설도시국장, 김신남 한전협력관 등은 교육, 전종화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배택휴 해양수산국장은 국외훈련대상자로 선발됐고, 광양부시장을 지낸 신태욱 부이사관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기교육훈련에서 복귀한 국장을 전보 죄하고 일·성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정책 역량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서은수 농림축산식품국장, 정순주 관광문화체육국장, 양근석 해양수산국장, 김정선 건설도시국장. 각자의 경력과 주요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농어촌 대책 마련 현장 의정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올 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대내·외 다양한 정책으로 어느 해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비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는 목소리도 많다. 도의회는 올해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했다. 도의원들이 올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요구한 자료는 1519건이다. 이는 지난해 1130건보다 389건(34%) 늘어난 수치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93건보다 22건 증가한 415건의 문제를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지역 현안을 진단했다. 특히 조례안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61건인데, 이중 95건(58%)이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례안 17% 증가한 총 161건

주민설명회·공청회 41회 열려

경북도의회와 상생 교류 협력

또한 '연구하는 의회', '현장활동 중심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교수·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정책을 조언받은 뒤 41회에 걸쳐 주민설명회·공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여기에 조선산업 현장을 포함한 농어촌 특색있는 현장·관광지·복지시설 등 도내 주요 민생현장을 찾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지방자치 혁신과 의회 역량 강화에 전력을 쏟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도의회는 지난 9월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 법률의 효율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법조인과 지역대학·연구기관·산업계 등 전문가 35명을 위촉한 뒤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5개월 간 도 자치법규



전남도의회의는 지난 14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448건을 전수조사한 뒤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했다. 도의회는 대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해 전남도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지역감정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교류협력을 맺고 화합대회·연찬회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 또 호남권 3개 시·도의장단협의회를 통해 부정정탁금지법에 농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포함한 FTA 피해

최소화, 누리과정 예산확보, 동서터널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이를 발판으로 도의회는 올해 의정활동과 관련, 20명의 의원이 각종 수상을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반기문 "독자신당 창당 어려울 것" ... 제3당행 시사

美 '포린 폴리시' 밝혀

한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독자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제3당' 창당 움직임이 있다고 말해 그의 신당행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반 총장은 지난 16일 이 매체의 유엔 전문 기자 콜럼 린치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붕괴하거나 '친박'과 '비박'파로 분당하기 직전임을 들어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3당'은 인터뷰한 기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반 총장이 지난 27일 분당을 공식화한 개혁보수신당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제3 지대'론자들 전체를 가리킨 것인지 불분명하다. 반 총장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출마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나라를 위해 일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 총장의 한 보좌관은 반 총장의 출마를 "1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반 총장은 부인해왔지만, 사실은 1년 이상 대선 출마를 위한 기초작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격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유틸 중심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메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과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공통불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유틸 중심 불포함)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유틸 중심 불포함)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유틸 중심 불포함)